

## 인구사회학적 특성이 도박중독·인터넷중독·심리적 안녕감에 미치는 영향

장 효 강\*

한국도박문제관리센터 강원센터

최 이 순

한국도박문제관리센터 부산센터

본 연구는 일반 성인의 인구특성이 도박중독·인터넷중독·심리적 안녕감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알아본 것이다. 중독수준의 분석에서는 문제도박 수준은 10%, 인터넷중독 수준은 2.6%의 결과를 보였다. 특히 인구특성에 따른 CPGI의 차이에서는 남성이 여성에 비해 높았으며 월평균수입과 용돈의 상관관계에서는 소득이 많고, 용돈이 많을수록 도박중독 수준이 높았다. 인터넷 중독 수준에서도 남성의 중독 수준이 여성의 중독 수준보다 다소 높게 나타났다. 연령이 낮을수록 인터넷 중독 수준이 높음을 알 수 있었다. 미혼 집단의 인터넷 중독 수준은 기혼자 집단에 비해 매우 높았으며, 월평균수입에 따른 인터넷 중독 수준의 차이가 있었다. 또한 심리적 안녕감 수준의 차이는 성별과 연령, 혼인상태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성인 대상자의 CPGI와 인터넷 중독 수준, 심리적 안녕감 척도 간의 상관관계를 알아본 결과 도박중독 척도인 CPGI와 인터넷 중독 수준 간에 정적 상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 결과의 시사점과 제한점을 논의하였다.

주제어 : 도박중독, 인터넷 중독, 심리적 안녕감

---

\* 교신저자(Corresponding Author) : 장효강, 한국도박문제관리센터 강원센터, jantonius@hanmail.net

세계보건기구(WHO)에서는 정신건강을 “단지 정신적 질병에 걸리거나 정신적으로 허약하지 않은 상태만이 아니라 개인의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 기능들이 최적의 상태로 발휘되는 상태”로 명시하고 있다(류황건 외, 2011). 중독은 현대사회에 널리 퍼져있는 문제이며, 정신건강을 연구하는 다양한 영역 중에 ‘중독’에 관한 다양한 고찰이 이루어지고 있다. 많은 사람들이 중독을 병으로 여기며, 중독의 결과 오랜 시간 고통에 시달리게 되고 인간의 존엄성이 파괴되는 비극을 낳는다고 생각한다(현미열 외, 2009). 중독은 크게 물질적 중독과 행위적 중독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 물질적 중독은 약물이나 알코올의 중독과 같은 특정 물질에 중독되는 것을 말하며, 행위적 중독은 인지적 경험에 지나치게 몰입하는 것으로 도박 중독과 인터넷 중독 등을 의미한다. 중독의 상태에 대해서는 개인적인 기준이 작용되는 경우가 있다. 즉 중독의 대상에 몰입한 개인이 스스로 그 활동에 대해 가치와 의미를 부여하고 그 활동을 선택하고 통제할 수 있다고 느끼면 본인은 스스로가 중독자라고 인정하지 않는다(이민규 등, 2003). 하지만 특정 대상에 중독되게 되면 일상적인 인간관계나 생활의 리듬이 파괴될 뿐만 아니라 잠재적으로 신체적, 정신적 건강도 위험한 지경에 놓이게 되며, 도박의 경우 경제적, 법적 파탄을 경험하게 되기도 한다. Young(1996)은 인터넷 중독이나 병적인 도박장애들이 반복적인 병적행위와 그 행위를 자제하지 못하는 성격적인 결함의 특징과 밀접한 연관이 있는 충동조절장애라는 측면을 가지고 있다고 하였다.

도박은 오락이나 여가의 맥락에서 자신에게 가치 있는 무엇을 그보다 더 큰 가치가 있는 무엇과 교환될 것을 기대하며 그 결과가 불확

실한 게임에 내기를 거는 것으로 정의 할 수 있다(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2008). 따라서 도박은 사소한 내기로부터 전문적인 도박행위에 이르기까지 그 범위가 다양하다. 이러한 행동에 과도하게 탐닉하여 개인과 가정에 부정적 결과를 일으키에도 불구하고 조절 불가능한 형태로 반복되면 문제성 혹은 병적 도박 상태에 이른 것으로 볼 수 있으며 개인, 가정 및 사회에 다양한 부정적 영향을 미치게 된다. 도박중독은 도박 행동의 빈도나 시간 및 손실 금액 등의 객관적 기준으로만 결정되지 않고 도박자의 환경이나 자원에 의해 조절된다. 특히 개인과 가족 및 지역사회에 다양한 피해를 도박중독 혹은 도박 문제의 대상으로 삼아, 공중보건이나 건강증진(health promotion) 및 피해저감(harm reduction), 사전 위험관리, 소비자 보호 등의 정책을 구현하는 데 도박중독 개념이 긴요하게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2012).

중독자들은 중독을 유발한 내적 원인에 대한 치료와 스트레스 관리능력에 변화가 이루어지지 않는 한 현실에서 채워지지 않은 욕구에 대한 갈망으로 중독의 고리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그 대상만 바꾸게 된다. 즉 특정중독 행위를 하고 있는 경우 여타의 중독적 행위에 대해서도 허용적일 가능성은 높다고 볼 수 있다. 인터넷은 오늘날 우리 일상의 한 부분이 되었으며, 전국 곳곳에 산재한 PC방과 광통신망의 발달로 속도와 비용에 대한 큰 부담 없이 사용할 수 있으며, 다양한 정보와 여가활동을 제공하고 있다. 인터넷 중독은 인터넷을 사용하는 시간이 지나치게 많고 이로 인해 막대한 지장을 받는데도 인터넷 사용을 조절할 수 없는 상태를 핵심개념으로 삼고 있다(Goldberg, 1996). Neighbors 등(2007)에 따르면,

인터넷에 탐닉할수록 도박에 대한 태도는 허용적이고, 도박에 대해 허용적일 수록 도박 참여도가 높고, 문제성 도박의 위험이 증가하였다고 하였다. 이는 곧 한 가지 중독 문제가 있는 사람은 다른 중독 문제에도 취약할 가능성이 있고 각각의 중독자들이 보이는 성격 특성은 서로 간에 공유되는 부분이 많은 것으로 볼 때, 일반인의 인터넷 중독 수준으로 문제성 도박의 수준을 예측할 수도 있을 것이다.

심리적 안녕감은 개인의 삶을 측정할 수 있는 즉 그대로 수용하고 긍정적인 대인관계를 유지하며 자신의 행동을 독립적 혹은 스스로 조절하는 능력이 있고, 주위환경에 대한 통제력이 있으며 삶의 목적이 있고, 자신의 잠재력을 최대한 실현시키려는 동기를 가지고 있음을 말한다. 심리적 안녕감은 중독의 부정적 경향에 대한 보호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는데 자존감, 자기주도적 인생 태도, 자기 효능감, 삶의 의미에 대한 추구 등으로 위험요인을 가진 개인이나 집단에게 심리적 안녕감이 보호요인으로 작용하여 문제성으로 갈 수 있는 확률을 줄일 수 있을 가능성을 시사한다(강정갑, 2001).

본 연구는 부산에 거주하는 성인을 대상으로 실시되었으며, 인구사회학적 특성에 따른 도박중독의 정도, 인터넷 중독의 정도, 심리적 안녕감의 정도를 파악하고, 각 변인들 간의 상관분석을 통해 관련성을 연구하였다. 이러한 연구는 향후 도박중독의 최소화를 위한 프로그램의 개발 및 예방교육 시 교육 프로그램의 개선 및 질적인 향상에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는 인구적 특성이 도박중독 · 인터넷 중독 및 심리적 안녕감에 미치는 영향에 관해 연구하는 것으로 연구목적은 달성하기 위한

연구범위는 다음과 같다.

첫째, 인구사회학적 특성에 따른 도박중독 수준(CPGI) 차이를 파악한다.

둘째, 인구사회학적 특성에 따른 인터넷 중독 차이를 파악한다.

셋째, 인구사회학적 특성에 따른 심리적 안녕감 차이를 파악한다.

넷째, CPGI · 인터넷 중독 · 심리적 안녕감 변인 간 상관관계를 파악한다.

## 방 법

### 연구대상 및 자료수집 방법

본 조사 연구는 2013년 9월부터 11월까지 한국도박문제관리센터 부산센터에서 실시한 도박중독예방교육에 참여한 성인을 대상으로 하였다. 설문지 작성은 교육을 실시하기 전에 이루어졌으며, 척도에 대한 소개와 함께 응답 과정에서 주의해야 할 사항들을 연구자가 설명한 후 참여자들이 스스로 문항을 읽고 답을 하는 자기 보고식으로 응답하였다. 설문조사 대상자는 총 467명 중 설문 문항에 대해 지나치게 잦은 결측 값을 보인 11명을 제외한 456명의 자료를 분석하였다. 본 조사에 사용된 설문지는 인구사회학적인 특성을 묻는 9문항과 도박중독 수준을 측정하는 CPGI 9문항, 인터넷 중독 수준을 알아보는 20문항, 심리적 안녕감을 알아보는 46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 조사 도구

#### 도박문제 심각도 지표(PGSI)

CPGI는 2001년 캐나다에서 일반 성인을 대

상으로 하여 도박측정도구로 개발되었으며, 도박관계, 문제도박 및 도박관련 성분들에 관한 31문항과 인구학적 물음으로 구성되어 있다. 본 연구에서는 CPGI 31문항 중 일반인들의 도박중독 유병률 조사에 활용하기 위해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2010)가 변안한 9문항의 단축형 조사도구를 사용하였다. 본 도구는 리커트식 4점 척도로 평정하며, 도박 문제 진단 시 9문항의 합이 0점인 경우 비문제성도박자, 1-2점은 저위험 도박자, 3-7점은 중위험 도박자, 8점 이상은 문제성도박자로 분류한다(Ferris & Wynne, 2001). 본 연구의 신뢰도 계수는 (Cronbach  $\alpha$ ) .88로 나타났다.

### 인터넷 중독 검사척도

인터넷 중독 수준을 평가하기 위하여 한국 정보문화진흥원(2008)에서 개발한 인터넷 중독 KS-자가 진단 척도를 사용하였다. 총 20문항으로 4점 Likert 척도로 구성되어 있으며, 피검자 자기 자신의 인터넷 중독 수준을 평가 하는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 20문항의 합이 1-31점은 일반사용자군, 32-54점은 잠재적 위험사용자 I군으로 관리 요망되며, 55-67점은 잠재적 위험사용자 II군으로 상담 요망된다. 68점 이상은 고위험 사용자군으로 집중치료가 요망된다. 본 연구의 신뢰도 계수는(Cronbach  $\alpha$ ) .90으로 나타났다.

### 심리적 안녕감(Psychological Well-Being Scale) 척도

심리적 안녕감의 구성요인은 자아 수용성, 긍정적 대인관계, 자율성, 환경에 대한 통제력, 삶의 목적 그리고 개인적 성장이다. 심리적 안녕감의 6개의 차원은 이론적으로 삶의 질에 영향을 준다고 생각되는 심리적 변인들이라고

할 수 있다(Ryan & Deci, 2001). 본 연구에서는 Ryff(1989)에 의해 개발된 심리적 안녕감 척도를 김명소 등(2001)이 한국판으로 변안한 척도를 사용하여 측정하였다. 본 연구의 신뢰도는 .92로 나타났다.

### 자료 분석

자료는 SPSSWIN(Statistical Package for the Social Science, Ver 17.0)을 이용하였으며, 첫째, 조사 대상자들의 도박중독의 심각도, 인터넷 중독 수준을 파악하기 위해 기술통계 및 빈도분석을 실시하였다. 둘째, 도박중독예방교육에 참여한 대상자들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에 따른 CPGI, 인터넷 중독, 심리적 안녕감을 알아보기 위해 일원변량분석(One-way ANOVA)과 사후검증을 실시하였다. 셋째, CPGI, 인터넷중독과 심리적 안녕감간 상관관계를 분석하였다.

## 결 과

### 연구대상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

대상자들의 성별, 연령, 직업, 결혼상태, 학력, 종교, 월평균수입, 월평균용돈에 대한 인구사회학적 특성은 표 1과 같다. 대상자의 남녀 비율은(237명, 219명) 비슷했으며, 연령대는 30대 이하가 32%, 30대가 20%, 40대 25% 및 50대 이상이 24%로 전 연령대 비슷하게 분포되어있다. 결혼 상태는 미혼 41%, 기혼 51% 였다. 학력은 고졸이 30% 가량이고 대부분 초대졸 이상으로 나타났다. 월평균 수입은 대학생들이 많아서 소득 없음이 23.7%로 높았고, 그 외 다양한 분포를 나타냈다. 용돈

은 평균 10만원에서 30만원정도가 가장 많았다.

표 1. 대상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 (단위: 명, %)

	구 분	n=456	%
성별	남	237	52.0
	여	219	48.0
연령	30대 이하	147	32.2
	30대	89	19.5
	40대	113	24.8
	50대 이상	107	23.5
결혼 상태	미혼	186	40.8
	기혼	232	50.9
	고졸	136	29.8
학력	초대재	14	3.1
	초대졸	43	9.4
	대재	110	24.1
	대졸	102	22.4
	대학원이상	29	6.4
	기타	22	4.8
월평균 수입	100만원 이하	58	12.7
	101-200만원	74	16.2
	201-300만원	88	19.3
	301-400만원	46	10.1
	401-500만원 이상	45	9.9
월평균 용돈	소득 없음	108	23.7
	10만원 이하	63	13.8
	11-20만원	91	20.0
	21-30만원	81	17.8
	31-40만원	49	10.7
	41-50만원	42	9.2
	51만원 이상	61	13.4

\* 특성별 합계의 차이는 missing data의 차이임.

인구사회학적 특성에 따른 도박중독수준 (CPGI), 인터넷 중독, 심리적 안녕감 차이

조사대상자들의 CPGI, 인터넷 중독 그리고 심리적 안녕감에 대해서 인구사회학적 특성에 따른 차이는 다음과 같다.

첫째, 인구사회학적 특성별로 CPGI의 차이를 살펴본 결과 표 2와 같이 성별에 있어서 남성과 여성의 CPGI에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

표 2. 인구사회학적 특성에 따른 CPGI 차이분석 결과

	구 분	n=456	M	SD	F
성별	남	237	0.33	0.47	42.87***
	여	219	0.10	0.25	
연령	30대 이하	147	0.19	0.32	0.40
	30대	89	0.24	0.45	
	40대	113	0.22	0.38	
	50대 이상	107	0.24	0.46	
혼인 상태	미혼	186	0.19	0.32	1.65
	기혼	232	0.24	0.45	
월평균 수입	소득없음	108	0.19	0.33	3.91**
	100만원 이하	58	0.15	0.26	
	101-200만원	74	0.12	0.29	
	201-300만원	88	0.29	0.50	
	301-400만원	46	0.30	0.41	
월평균 용돈	401-500만원이상	45	0.38	0.54	3.11**
	10만원 이하	63	0.18	0.43	
	11-20만원	91	0.16	0.28	
	21-30만원	81	0.19	0.31	
	31-40만원	49	0.32	0.53	
	41-50만원	42	0.26	0.39	
	51만원 이상	61	0.38	0.51	

\*\*  $p < .01$ , \*\*\*  $p < .001$

났다( $F=42.87, p<.001$ ).

월평균수입에 따라 CPGI의 차이가 유의미( $F=3.91, p<.01$ )하여, 사후검증을 한 결과 '101만원-200만원'과 '401만원-500만원' 집단 간 유의미한 차이를 나타내서 소득이 높은 사람이 소득이 낮은 사람에 비해 도박문제 심각도가 높음을 시사한다. 또한 월평균용돈에 따라 CPGI의 차이가 유의미하였다( $F=3.11, p<.01$ ). 이에 대해 사후검증을 한 결과 용돈이 많으면 많을수록 CPGI가 높게 나타났다.

둘째, 성인의 인구사회학적 특성별로 인터넷 중독의 차이를 살펴본 결과, 표 3과 같이 성별에 있어서 남성과 여성의 인터넷 중독에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다( $F=5.26, p<.01$ ). 연령에 있어서도 유의한 차이를 나타냈으며( $F=28.91, p<.001$ ), 사후검증을 한 결과 30대 이하가 40, 50대 보다 평균이 높았다. 혼인상태에 따라서 인터넷 중독에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으며( $F=54.44, p<.001$ ), 미혼이 기혼에 비해 평균이 높았으며, 월평균수입에 따라서도 인터넷 중독의 차이가 유의미하였다( $F=2.77, p<.01$ ). 사후검증을 한 결과 '101만원-200만원'과 '401만원-500만원' 집단 간 유의미한 차이를 나타내서 월평균소득이 높은 사람이 인터넷 중독의 가능성이 높음을 시사한다.

셋째, 성인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에 따른 심리적 안녕감의 차이를 살펴본 결과, 표 4와 같이 성별에 있어서 여성이 남성에 비해 심리적 안녕감이 높았다( $F=6.05, p<.01$ ). 그리고 연령에 있어서 유의한 차이를 나타냈으며( $F=5.02, p<.001$ ), 사후검증을 한 결과 나이가 많을수록 심리적 안녕감이 높았다.

혼인상태에 따라서 심리적 안녕감에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으며( $F=54.44, p<.001$ ), 기혼이 미혼에 비해 평균이 높았다. 월평균수입과 월

표 3. 성인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에 따른 인터넷 중독 차이분석 결과

	구 분	n=456	M	SD	F
성별	남	237	1.64	0.50	5.26**
	여	219	1.53	0.54	
연령	30대 이하	147	1.84	0.50	28.91****
	30대	89	1.66	0.53	
	40대	113	1.46	0.48	
	50대 이상	107	1.31	0.40	
혼인 상태	미혼	186	1.79	0.51	54.44****
	기혼	232	1.44	0.48	
월평균 수입	소득없음	108	1.74	0.53	2.77**
	100만원 이하	58	1.59	0.57	
	101-200만원	74	1.51	0.47	
	201-300만원	88	1.59	0.53	
	301-400만원	46	1.48	0.50	
	401-500만원 이상	45	1.52	0.49	
월평균 용돈	10만원 이하	63	1.56	0.56	1.04
	11-20만원	91	1.63	0.52	
	21-30만원	81	1.64	0.47	
	31-40만원	49	1.62	0.51	
	41-50만원	42	1.45	0.44	
51만원 이상	61	1.65	0.58		

\*\*  $p<.01$ , \*\*\*  $p<.001$

평균 용돈에 따라 심리적 안녕감의 차이는 유의미하지 않았다.

CPGI, 인터넷 중독, 심리적 안녕감간 상관관계

대상자의 CPGI와 인터넷 중독, 심리적 안녕감의 세 변인간의 상관관계를 파악하고자 상관관계 분석을 실시하였으며, 표 5에서와 같

표 4. 인구사회학적 특성에 따른 심리적 안녕 감 차 이분석 결과

구 분	n=456	M	SD	F	
성별	남	237	3.59	0.51	6.05**
	여	219	3.70	0.48	
연령	30대 이하	147	3.53	0.47	5.02**
	30대	89	3.60	0.42	
	40대	113	3.69	0.49	
	50대	107	3.76	0.59	
혼인 상태	미혼	186	3.51	0.45	18.66***
	기혼	232	3.72	0.50	
월평균 수입	소득없음	108	3.57	0.51	1.33
	100만원 이하	58	3.55	0.50	
	101-200만원	74	3.69	0.55	
	201-300만원	88	3.60	0.33	
	301-400만원	46	3.69	0.46	
월평균 용돈	401-500만원	45	3.70	0.57	1.15
	10만원 이하	63	3.67	0.55	
	11-20만원	91	3.70	0.41	
	21-30만원	81	3.60	0.42	
	31-40만원	49	3.57	0.35	
41-50만원	42	3.65	0.54		
51만원 이상	61	3.56	0.47		

\*\*  $p < .01$ , \*\*\*  $p < .001$

표 5. 성인의 CPGI, 인터넷 중독, 심리적 안녕감간 상관관계

	CPGI	인터넷 중독	심리적 안녕감
CPGI	—	.241***	-.033
인터넷 중독		—	-.014
심리적 안녕감			—

\*\*\*  $p < .001$

이 성인 대상자의 CPGI와 인터넷 중독은 유의미한 정적상관을 나타냈다( $r=.241, p<.001$ ). 즉, CPGI가 높을수록 인터넷 중독 수준도 높아짐을 의미한다.

## 논 의

본 연구는 인구특성이 도박중독 · 인터넷중독 · 심리적 안녕감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연구하였다. 첫째, 인구사회학적 특성과 CPGI의 결과에서는 남성과 여성의 CPGI 정도에서 큰 차이(남성의 CPGI: 0.33점, 여성의 CPGI: 0.09점)를 보였고, 여성에 비해 남성이 도박중독의 가능성이 높게 나타났다. 월평균수입과 용돈에 있어서는 소득이 많고, 용돈이 많을수록 도박중독 수준이 높게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이민규 등(2003)의 연구에서 도박참여자와 도박중독자는 월 200~400만원의 수입이 있는 중산층 수준의 경제 상태를 가진 대상자가 많았고, 빈곤계층보다는 일정한 소득이 있을 경우에 도박 경험이 더 많았다는 것과 일치하는 결과이다(이홍표, 2002; 이민규 등, 2003; 김영훈과 이영호, 2006). 본 연구에서도 100만원대보다 400만원대의 수입이 있는 성인들에게서 도박중독 수준이 높게 나타났다. 낮은 소득에 비해 적정 수준의 소득은 도박의 사고 동기에 영향을 미쳐 접근 가능성을 높일 것이고, 변동 비율로 주어지는 초기의 승리(금전 획득) 경험이 정적강화로 작용하여 도박행동을 습관적으로 이끌 수 있다고 하였다(Walker, 1992).

김석준과 강세현(1996)의 도박의 실태와 의식에 관한 연구에서 제주지역을 대상으로 조사를 실시한 결과에서도 일반인들의 2/3 정도

가 어떤 형태로든 돈 내기 놀이에 참여하는 것으로 나타남으로써 도박이 일반인들 사이에 널리 성행하고 있다는 사실을 밝혔다. 도박에 참여하는 정도가 높은 인구사회학적 특성을 보면 학력이 높고, 젊은 층일수록, 여자보다는 남자가, 기혼보다는 미혼 층에서 도박 참여도가 높았다. 이러한 특성은 본 연구 결과와 일치하는 결과이다.

둘째, 인구사회학적 특성과 인터넷 중독 수준에서도 남성의 중독 수준이 여성의 중독 수준보다 높게 나타났으며, 이러한 결과는 남성이 도박행동에 대한 심적 관여도(invovment)가 높기 때문이라고 한 이현정(2011)의 연구결과와 일치한다. 또한 Petry, Stinson과 Grant (2005)의 연구에서도 병적도박자의 72.2%가 남성으로 나타났고, 캐나다 퀘벡 지역에서 층화 표집하여 유병률을 연구한 Ladouceur, Dube와 Bujold의 연구에서도 위험성 및 병적도박자의 75.9%가 남성이었다(Ladouceur 등, 1997).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2012)의 조사결과에서도 여자(3.6%)보다는 남자(10.9%)로 남자의 유병률이 높게 나타났다. 인터넷의 사용에서도 경매, 도박, 게임 등 인터넷을 통한 현실 도피 태도와 공격적인 성향 및 인터넷 중독 역시 남성에게서 더 많이 나타났다(이혜영과 이여봉, 2002). 그리고 연령이 낮을수록 인터넷 중독 수준이 높게 나타났으며, 미혼 집단의 인터넷 중독 수준은 기혼이나 기타 집단에 비해 매우 높았으며, 월평균수입에 따른 인터넷 중독 수준의 차이는 월평균수입이 100만원대 보다 400만원대가 높았다. 이는 미혼자의 인터넷 접근성이 높고, 온라인 매체를 접할 기회가 많다는 것을 간접적으로 반영해주는 결과로 시사된다. 또한, 성인의 월평균수입에 따라 인터넷 중독 척도 평균에서도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권선중 등(2007)의 연구에서도 현대에 있어 인터넷의 접근성이 높아지면서 인터넷을 통한 도박 피해사례가 늘고 있다고 하였다. 인터넷 중독은 인터넷을 통한 도박에 쉽게 노출되게 함으로 도박중독으로 그 영향력이 확대될 수 있음을 가정해 볼 수 있다. 한 가지 중독 문제가 있는 사람은 다른 중독 문제에도 취약할 가능성이 있고, 각각의 중독자들이 보이는 성격 특성은 서로간에 공유되는 부분이 많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Svetieva & Walker, 2008).

셋째, 성인 대상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에 따른 심리적 안녕감 척도 평균의 차이는 성별과 연령, 혼인상태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CPGI 수준이나 인터넷 중독 척도와는 달리 월평균수입에 따른 집단별 차이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심리적 안녕감과 돈은 별로 상관이 없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또한 심리적 안녕감에 있어서 성별에 따른 차이를 살펴보면 여성의 평균점수가 남성의 평균점수보다 높게 나타났으며, 연령에 따른 심리적 안녕감 척도 평균의 차이에 있어서는 연령이 높아질수록 심리적 안녕감 척도의 평균점수가 높게 나타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혼인의 유무에 있어서도 기혼자 집단이 미혼자 집단보다 심리적 안녕감 척도의 평균점수가 높게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심리적 안녕감이 도박중독의 보호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음을 시사하며, 삶의 질이 높을수록 중독행동과 거리가 있을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넷째, 대상자의 CPGI와 인터넷 중독 수준과 심리적 안녕감 간의 상관관계를 알아본 결과 성인 대상자의 도박중독 척도인 CPGI와 인터넷 중독 수준간에 정적 상관( $p < .001$ )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도박중독과 인터넷 중독의 상관이 높고 중독이 가중되고 심각성이 증가한다는 것을 시사한다. Slutske 등(2005)의 연구에서도 한 가지 중독 문제가 있는 사람은 다른 중독 문제에도 취약할 가능성이 있고 각각의 중독자들이 보이는 성격 특성은 서로 간에 공유되는 부분이 많다고 하였다.

본 연구의 제한점과 앞으로 시행되어야 할 후속 과정은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에서는 심리적 안녕감이 도박 중독과 인터넷 중독의 보호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기대되어 부적 상관이 있을 것이라고 가정하였으나 유의한 수준은 아니었다. 심리적 안녕감과 도박중독과 인터넷 중독의 부적 상관을 고려하기 위해서는 먼저, 심리적 안녕감이 도박중독과 인터넷 중독의 보호요인에 대한 설명력이 크다는 연구가 선행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후속연구에서는 다양한 관찰법이나 면접법 등을 사용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둘째, 본 연구에서 조사대상자가 부산지역의 성인들을 대상으로 선정하였다. 표집방법에 있어서 층화추출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연구결과를 일반화하는 것은 무리가 있을 수 있다. 후속연구에서는 조사대상자들의 연령, 지역 등 세분화시켜 편중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셋째, 도박중독을 측정하는 도구(CPGI)의 경우 한국의 실정에 온전히 부합한다고 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으므로, 현재 검증과정을 거치고 있는 한국형 도박중독 진단척도(KGBS)와 함께 사용하는 방안도 가능할 것이다.

넷째, 인터넷중독의 경우 게임중독, 통신중독, 음란물중독 등 하위 유형이 다양하므로

세분화하여 도박중독과 심리적 변인들과의 관련성을 연구해 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 참고문헌

- 강정갑 (2001). 경남지역 초등학교사의 심리적 안녕감과 교사 위상변화에 대한 지각, 창원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 권선중 · 김교현 · 성한기 · 이민규 · 강성군 (2007). 성인과 남자 청소년의 불법 인터넷 도박문제와 위험요인 그리고 예방전략, 한국심리학회: 건강, 12(1): 1-19.
- 김명소 · 김혜원 · 차경호 (2001). 심리적 안녕감의 구성개념분석: 한국 성인 남녀를 대상으로, 한국심리학회: 사회 및 성격, 15(2): 19-39.
- 김석준 · 강세현 (1996). 도박의 실태와 의식에 관한 연구 - 제주 지역을 대상으로, 한국형 사정책연구원
- 김영훈 · 이영호 (2006). 병적 도박자의 단 도박에 영향을 미치는 심리적 요인, 한국심리학회: 임상, 25: 697-710.
- 류황건 외 (2011). 알기 쉬운 공중보건학. 수문사. 18-19.
-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2008). 불법도박의 실태조사 및 대책연구. 사행산업통합 감독위원회 보고서.
-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2012). 사행산업 이용 실태조사.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보고서.
- 이민규 · 김교현 · 김정남 (2003). 도박중독 실태와 도박중독자의 심리사회적 특성 - 지역별 비교를 중심으로. 한국심리학회: 건강, 8(2): 399-414.
- 이혜영 · 이여봉 (2002). 인터넷 활용에 있어서

- 의 성차에 관한 연구. 여성가족생활연구. 7:43-74.
- 이현정 (2011). 도박행동에 대한 개념적 구조 및 측정적 특성의 일반화. 성균관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홍표 (2002). 비합리적 도박신념, 도박동기 및 위험감수 성향과 병적도박의 관계, 고려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한국정보화진흥원 (2008). 청소년인터넷중독 자가진단척도 고도화 연구. 서울: 한국정보화진흥원.
- 현미열, 김문두 (2009). 대학생들의 인터넷 중독실태와 도박에 대한 의식 조사, 정신간호학회지, 18(1): 95.
- Ferris, J. & Wynne, H. (2001). The Canadian problem gambling index: Final report. Toronto, ON: Canadian Centre on Substance Abuse.
- Goldberg, I. (1996). Internet Behavior and Addiction Unpublished thesis, Swiss Federal Institute of Technology, Zurich.
- Ladouceur, R, Arsenault, C. Dube, D. Freeston, M. H & Jacques, C. (1997). Pathological characteristics of volunteers in studies on gambling. *Journal of Gambling studies*, 13: 69- 84.
- Neighbors, C., Loututter, T. W., Whiteside, Fossos, Walker & Larime. (2007). Injunctive Norms and Problem Gambling among College Students. *Journal of Gambling studies*, 23(3).
- Petry, N. M., Stinson, F. S. & Grant, B. F. (2005). Comorbidity of DSM-IV pathological gambling and other psychiatric disorders: results from the National Epidemiologic Survey on Alcohol and Related Conditions. *Journal of Clinical Psychiatry*, 66(5): 564-574.
- Ryan, R. M. & Deci, E. L. (2001). On happiness and human potentials: A review of research on hedonic and eudaimonic well-being". *Annual Review of Psychology*, 52:141-166.
- Ryff, Carol D. (1989). Beyond ponce de Leon and life satisfaction: New directions in quest of successful ageing. *Psychosocial Developmental psychology*, 4(10).
- Slutske, W. S., Caspi, A., Moffitt T. E. & Poulton, (2005). Personality and Problem Gambling: A Prospective Study of a Birth Cohort of Young Adults. *Archives of general psychiatry*, 62(7).
- Svertieva, E. & Walker, M. (2008). Inconsistency Between Concept and measurement: The Canadian Problem Gambling Index(CPGI). *Journal of Gambling Issue: Issue 22*: 157-173.
- Walker, M. (1992). The Psychology of gambling, Oxford, England, Pergamon Press.
- Young, K. S. (1996). Internet Addiction: The emergence of new clinical disorder. Paper presented at the American Psychological Association, Toronto, Canada, August Cyber psychology and Behavior, 1: 237-244.

원고접수일 : 2016. 04. 20.  
수정원고접수일 : 2016. 06. 10.  
최종게재결정일 : 2016. 06. 18.

## Impact of gambling addiction, internet addiction, and psychological wellbeing in the demographic and economic characteristics

**Jang, Hyo Kang**

Korea Center On Gambling Problems  
Gangwon of Korea Center

**Choi, Yi Soon**

Korea Center On Gambling Problems  
Pusan of Korea Center

This research studied how the demographic features of general population have affected the problems such as gambling, Internet addiction and psychological Well-Being. According to the analysis in terms of the CPGI difference by the feature of population, men showed higher CPGI points than the case of women. For Gambling addiction level, the more they earned the average monthly incomes and allowances, the higher the addiction level they had comparatively. In terms of internet addiction level, men showed the tendency to be addicted easier than women and younger people had higher addiction. Unmarried people group seemed to show much higher level of Internet addiction than married people group. Also, much difference was confirmed in their internet addiction according to the average monthly income. Adult participants generally showed that their addiction levels of psychological Well-Being by sociological features of population depended closely on the factors such as sex, age and marital status. The result of this study indicated that there was a positive relationship between Internet addiction level and CPGI from the measurement of adult participants' gambling addiction level. The limitations and implications of the study were discussed.

*Key words* : gambling addiction, internet addiction, psychological wellbeing